

중동은 정말 다른가?: 중동 지역 연구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다

엄한진 지음, 『다르지 않은 타자: 사건으로 보는 중동의 정치와 사회』(씨아이알, 2024)를 읽고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I. 중동, 우리에게 너무나 먼 타자

중동은 어떤 지역일까? 많은 한국 사람이 중동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슬람, 테러, 전쟁, 극단주의, 석유와 같은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중동은 히잡을 두른 여성,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메카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이슬람의 땅이다. 때때로 이슬람은 중동을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문화가 만연한 곳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동은 전근대적인 이슬람법이 지배하는 지역이고, 여성이 자유로운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정숙한 옷차림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기도 하고 남성은 아내를 네 명까지 둘 수 있으며 도둑은 손목이 잘리는 그런 곳으로 묘사된다. 천 년도 전에 만들어져 시대에 뒤떨어진 규범이 여전히 작동하고 그렇기에 변하지 않는, 또는 변화를 거부하는 지역이 바로 중동이다, 중동은 또한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활개를 치는 위험한 땅이자 이라크 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23년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항상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화약고'다. 독재와 인권 탄압, 좌절된 민주화 역시 중동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나마 중동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긍정적인 인상은 석유와 관련되어 있다. 걸프 산유국은 유망한 경제적 기회가 있는 지역이자 석유 덕분에 주체할 수 없

을 정도로 막대한 돈이 넘쳐흐르는 지역으로 인식된다. 동시에 낙타와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공존하는 등 전통과 현재가 섞여 있는 걸프 국가의 모습은 중동을 이질적이고 특이한 지역으로 보는 시각을 강화한다.

우리가 중동에 대해 가지는 인상은 이처럼 주로 다름과 특이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동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과 완전히 다른 논리와 작동 방식에 따라 돌아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규범과 가치가 지배하는 곳으로 여겨진다. 중동을 타자화하는 시각은 중동을 단순화하기도 하며, 특히 이슬람에 주목한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땅으로 타자화된 중동은 이슬람으로 모든 사회적·정치적 현상이 설명될 수 있는 단순화된 중동이기도 하다. 일상 관습에서부터 인권 문제, 독재, 극단주의, 테러, 분쟁, 심지어 중동 국가의 축구대표팀이 보여 주는 침대축구까지 중동의 모든 것이 이슬람으로 설명된다. 중동을 전 세계 어느 지역과도 같지 않은 예외적인 지역으로 보는 중동 예외주의(Middle East exceptionalism)는 오늘날 중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널리 자리를 잡고 있다.

II. 중동 예외주의를 넘다

엄한진의 『다르지 않은 타자: 사건으로 보는 중동의 정치와 사회』는 바로 이러한 중동 예외주의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언어, 개념, 시각으로 중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다. 엄한진이 바라보는 중동은 이슬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문화를 가진 ‘타자’인 동시에 우리 사회처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문제를 마주한 ‘다르지 않은’ 지역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부터 이미 엄한진은 아랍 지역과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엄한진, 2011; 엄한진, 2015). 엄한진의 비판은 아랍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현상보다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측면에만 매몰된 시각에 향한다. “아랍사회에 대한 논의는 종교문제에 갇혀 있다”(엄한진, 2011: 180)는 것이 엄한진이 제기하는 핵심적 주장이다. 아랍 그리고 중동

지역에 관한 관심이 향하는 곳은 종교와 관련된 분야에 국한되며, 세속적 측면에 관한 이해와 분석도 종교와 결부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편향된 관점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점은 중동 지역의 민주화와 관련된 논의다. 중동 지역을 이슬람이 정치와 사회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특수한 지역으로 보는 중동에 예외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서구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같은 서구적 가치가 수용될 수 없다. 중동은 독재와 민주화와 같은 세속적인 정치 현상도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 설명되어야 하는 특수한 지역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예외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엄한진도 인정하듯이 중동이 다른 지역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중동이 특히 분쟁이 만연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 정체되거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중동을 예외적이고 특수하게 보이게 만드는 현상이 반드시 중동만이 가진 특별하고 본질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동 또한 다른 탈식민국가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배가 남긴 유산, 발전을 동반하지 못한 서구화, 좌절된 자주와 통합에의 열망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중동의 정치적·사회적 문제 또한 이러한 구조적이고 보편적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중동만이 가진 고유한 특수성을 간과하거나 부인할 수 없지만, “사회가 보편과 특수성의 결합”(10쪽)이라는 사실은 중동을 분석할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 예로 중동의 소수자 문제에 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소수 종교, 종파, 종족이나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탄압을 비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이슬람과 여성의 권리와 같은 문제, 즉 중동만의 특수한 요소인 이슬람과 관련지어 전개된다. 그러나 엄한진은 이 과정에서 중동의 성소수자와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주목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중동만의 특수한 상황에 매몰된 나머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심지어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성소수자와 이주민 문제가 중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는 것이다.

엄한진은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유행에서 중동과 세계 다른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보편성을 포착한다. 코로나19 유행이 미친 영향과 정부의 대응에서 중동만의 특수한 점, 즉 이슬람과 같은 요인에 따른 차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동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감염 속도가 빨랐고 여성과 이주 노동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이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자유로운 외출과 집합을 정부가 금지하고 통제하는 ‘권위적인’ 조치는 중동의 독재 국가뿐만 아니라 서구와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 공중 보건과 민주주의 사이의 논란을 야기하며 권위주의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서구와 아시아의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엄한진은 이란이 가진 특수성에 매몰된 시각이 코로나19 유행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경험한 보편적 문제가 아니라 이란만의 특수한 문제인 것처럼 이해하는 왜곡된 관점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한다.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는 이란만이 아니었지만, 엄한진은 이란에서의 코로나19 유행은 유독 이란 정치체제의 특징과 관련되어 설명된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란은 폐쇄적인 정치체제로 인해 전염병 유행 통제에 필요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어렵고, 전 세계 시아파들이 모이는 성지가 위치해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입지에 있다. 의료체제를 부실하게 만든 경제난도 경제제재를 감수하며 서방 국가와의 대립을 포기하지 않는 이란 정권의 외교 정책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만의 특수한 점이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이란이 겪은 피해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코로나19는 이란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위기였고, 위기가 이란에 가져온 영향과 이란 정부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다른 나라들과 같았다는 점은 이란 체제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도외시되고는 한다.

중동에서의 코로나19 유행에 관한 엄한진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보편과 특수성의 결합”이 지역 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 준다. 내전, 경제난, 높은 청년층 비율과 같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중동에 존재하던 특수한 정치적·사회적 상황은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 지구적이고 보편적인 사건과 결합했다. 바로 이러한 결합의 결과로 레바논에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 저항이 촉발되었으며 튀니지에서는 민주화의 결실이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났다. 지역 연구자

가 찾아야 하는 것은 한 지역이 가진 변하지 않는 본질적 특징이 아니라 보편적 변화가 지역의 특수한 맥락과 결합하여 만들어 내는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III. 히잡을 금지하는 것과 강제하는 것은 과연 다를까?

세계 유일의 신정체제 국가라고 불리는 이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동의 특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로 여겨진다. 물론 종교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정부가 이슬람법을 국민에게 강제하고 하는 이란과 같은 나라를 세계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엄한진은 이란의 이런 모습이 과연 정말 이란만의 것인지 묻는다. 엄한진은 히잡을 강제하는 이란 정권의 모습을 남녀 관계, 복장, 섹슈얼리티와 같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하려 드는 도덕주의와 비교하며,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향하는 한국의 도덕주의와 국민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란의 도덕주의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사적 영역까지 정치화하고 상업화하려고 드는 한국의 언론이나 검찰이 이란의 도덕경찰과 닮았다고 보는 엄한진의 주장은 다소 과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란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제기로써 의미를 지닌다.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타인에게 강제하고 타인의 개인적 영역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과연 중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프랑스에서는 2004년 공립학교에서 여학생의 히잡 착용이 금지됐고, 스위스에서는 2021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기까지 했다. 여성의 의복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모든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이란 정부의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화국’의 이름으로 여성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서구적 가치를 절대선으로 보는 인식에서 서구와 다른 모습은 후진적이며 따라서 교정되고 계몽되고 문명화되어야 하는 객체로 규정된다. 그리고 서구와 가장 가까운 타자인 중동이 바로 이러한 인식이 주로 향하는 지역이었다.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논리는 여성 해방, 성평등, 정교분리 등의 가치를 내세워 중동 무

슬림 여성을 히잡으로 상징되는 억압으로부터 해방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엄한진은 과연 여기에 중동을 열등한 타자로 보는 식민지 시기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지 묻고, 현대 프랑스에서 전개되는 히잡 논쟁을 과거 알제리를 식민지배할 때 알제리 여성들의 히잡을 강제로 벗기려고 했던 프랑스 식민정부의 정책과 비교해 유사성을 포착한다.

엄한진은 히잡 문제에서 서구와 중동 이슬람권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찾아낸다. 히잡을 반대하는 측은 히잡을 여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으로 보고 무슬림 여성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서구 여성과 다른 타자로서 이슬람적 규범과 남성에 의해 억압되는 존재로 상정한다. 히잡을 강제하려는 측은 히잡을 서구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문화적 타락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보고 국가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여성에게 강제한다. 여성을 통제될 수 있는 객체로 보고 여성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라는 점을 망각한다는 점에서 양측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은 히잡은 중동 이슬람권의 고유한 문화이기에 어떤 형태든 항상 존중받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나 이란 신정정권을 프랑스나 스위스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히잡, 더 나아가 중동 무슬림 여성의 인권에 관한 논의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여성 자신들의 목소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히잡을 억압의 상징 또는 무슬림 여성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정의하는 관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주체적 목소리는 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IV. 중동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중동 지역의 정치 행위자들은 급진적이고 과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상이다.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테러 조직원들,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적의를 선동하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무기를 들고 행진하는

무장조직 대원들,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람들,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에 맞서는 시위대 등 과격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중동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적의와 분노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슬람이 본래 타자에, 특히 서구에 적대적인 종교이기에 그런 것인가? 중동 사람들이 감정적인 본성을 타고 났기 때문인가?

엄한진은 아랍과 중동의 분노가 향하는 곳을 외부의 지배자, 내부의 지배자, 내부의 소수자 세 집단(86쪽)으로 분류하고,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바로 아랍 또는 중동 지역과 서구 사이 관계의 역사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중동을 식민 지배한 뒤에도 서구는 여러 차례 중동에 개입해 왔고, 이는 중동이 타자에, 특히 서구에 분노하는 이유가 되었다. 19세기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에 개입해 왔으며, 이집트, 튀니지 등은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에 종속되었고 알제리는 아예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1차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중동 대부분이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통치를 받거나 보호령이 되었다. 미국 등 서구는 1948년 아랍인의 뜻을 거스르고 세워진 이스라엘을 지원했으며 이후 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도 꾸준히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이란에서는 1951년 석유 국유화를 선언한 모함마드 모사데그(Mohammad Mosaddegh) 총리를 축출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개입해 쿠데타를 지원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2011년 유럽의 리비아 내전 개입 등의 사건은 중동 사람들에게 서구의 중동 침투와 개입이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인식을 강화했다.

엄한진은 중동에서 근대화는 가장 가까운 타자인 서구와 닮아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구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했고, 서구와 식민주의가 동일시된다고 분석한다. 식민지배의 기억과 식민지배 이후에도 계속되는 개입은 중동에서 반서구주의와 반미주의를 유지하고 조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서구에 대한 증오는 서구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 즉 자유, 민주주의,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 증진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된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서구의 개입과 간섭과 동일시되어 억압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가나 시민단체가 외세와 결탁했다는 혐의로 처벌받기도 하는 상황은 서구와의 악연에서 비롯된 증오가 중동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중동에서 민주적 제도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서구의 지배와 함께 이식되었고, 독립 이

후에는 서구화된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자 식민지배의 잔재로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은 중동에서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적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과 완전히 무관하지만은 않다. 외부의 지배자에 대한 분노가 내부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연결되는 것이다.

중동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발전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것도 중동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다. 가령 2020년대 이후 레바논, 이라크 등에서 나타나는 시위는 심화되는 경제난과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아랍 국가에서 불평등은 1980년대 이후 심화되었는데, 이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도입과 관련되어 있다. 1950~1960년대 독립한 이후 아랍 각국 정부는 식민지배 시기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과 공공부문 경제를 확대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경제 정책을 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정책은 1980년대 이후 한계에 봉착한다. 비산유국 정부 재정이 악화되면서 무상 복지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필요한 예산 조달이 어려워졌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대외 부채가 막대하게 증가했다. 결국 1980년대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등 아랍 국가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고, IMF의 요구에 따라 경제개방과 민영화, 자유화, 보조금과 공공부문 고용을 축소하여 정부 재정 지출을 삭감했다. 아랍 국가의 평범한 시민들의 생계를 일정 정도 보장하던 안전망은 사라졌지만 경제 자유화 정책은 기대했던 민간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복지 혜택만 감소한 채 경제 전체가 둔화되는 최악의 상황만 발생했다. 이에 따른 생활고 심화와 실업 문제가 바로 아랍인들이 그들의 정부와 기득권층, 현 상황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다. 국가 주도 경제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라는 변화는 탈식민국가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다. 중동과 아랍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에 관한 논의에서 이슬람과 같은 중동과 아랍만의 독특한 무언가에 의존하는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분노 또한 보편적인 관점에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V. 중동의 청년과 여성이 직면한 도전: 이슬람이 아닌 경제

경제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이다. 열악한 비공식 부문에서밖에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고국을 떠나거나 극단주의에 빠져 들기도 한다. 아랍의 봄이 시작되고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는 튀니지에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은 청년들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와 이라크로 떠났다는 점은 청년들의 좌절이 어떻게 테러리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엄한진은 중동 청년을 경제적 기회나 미래가 결여된 존재 또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경도되는 위험한 집단 어느 한쪽으로 간단하게 규정하는 시각을 비판한다. 좌절된 실업자 또는 분노한 극단주의자라는 양면적 시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이 세계 다른 지역처럼 중동 지역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해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청년들은 그들이 익숙한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통한 재테크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한편 청년들의 종교성이 개인화되기 시작하면서 중동에서는 이슬람이 정치적 이념으로서 작동한다는 통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동 청년들은 또한 한국이나 중국의 청년과 무기력도 공유한다. 자포자기한 중국의 탕핑 청년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한국의 삼포세대는 중동에도 존재한다. 일자리가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하고 적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피하거나 미루면서 전통적인 대가족이 소규모 핵가족으로 바뀌는 양상도 나타난다. 경제가 발전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중동에서도 확인된다. 1980년대 6.2명이었던 중동 지역의 출산율은 2020년 2.7명까지 하락했다. 특히 튀르키예나 이란의 출산율은 각각 1.51명, 1.7명으로 서구권과 비교될 정도로 낮은 선까지 떨어져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변화에 따라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중대한 결심”(62쪽)이 되고, 전통적인 가족 규범과 제도도 달라지는 모습은 중동 또한 예외가 아니다. 중동의 예외성과 특수성에 매몰된 시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아랍 여성들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흔히 중동의 보수적이고 여성차별적인 이

슬람적 규범이 거론되고는 하지만, 이슬람과 무관한 설명도 가능하다. 엄한진은 아랍 여성들의 낮은 사회 참여 수준이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경제가 악화되는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주로 취업하던 공공 부문 고용이 위축되고, 민간 부문의 열악한 비공식 일자리마저 남성들이 차지하면서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줄었다. 엄한진이 지적하듯이 아랍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한 것은 쿠란이나 종교 지도자보다는 아랍 각국 정부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도입하도록 압박한 세계은행과 IMF, 외부 투자자들이었다(55쪽). 이슬람이라는 특수한 요소가 중동 사회를 변화시키고 작동하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중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VI. 끝나지 않은 미완의 혁명

2009년 이란 녹색운동, 2011년 아랍권 전역을 휩쓴 ‘아랍의 봄’, 다시 2022년 이란에서 터져나온 히잡 반대 시위에 이르기까지 중동은 여러 차례 대대적 저항과 혁명의 한복판에 놓였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저항과 혁명은 중동 독재 체제의 강고함과 민주주의의 어려움만을 재확인하는 사건이 되었다. 리비아와 시리아의 혁명은 내전으로 변질되었으며, 이집트에서는 선거로 당선된 무슬림형제단 출신 무함마드 무르시(Muhammad Mursi)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실각하고 군부 출신 인사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권이 다시 돌아왔으며, 아랍의 봄의 모범생이라고 여겨진 튀니지에서 2021년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회를 해산하는 등 권위주의 행보를 보임에 따라 중동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없다는 예외주의가 다시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혁명의 원인이자 국민의 요구였던 사회경제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청년실업률은 혁명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했으며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2024년 현재 아랍의 봄과 중동 민주화의 꿈은 좌절된 것처럼 보인다.

왜 아랍의 봄은 민주화를 성취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아랍인들이 아랍의 봄으로 추구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엄한진은 이에

대해 아랍의 봄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던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제도 뿐만 아니라 ‘카라마(karamah)’, 즉 존엄성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성적인 부패, 불평등, 빈곤, 실업난에 항의하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요구한 것이었다.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지고 의회가 구성되었더라도 아랍인들이 만족하지 못한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제도만으로는 대중의 요구와 기대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튀니지로, 한새롬(2021)은 혁명 이후 튀니지의 민주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회경제적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 사회민주주의와 정치 엘리트들의 자유민주주의 간의 긴장과 괴리를 꼽은 바 있다.

엄한진 또한 존엄성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으며 정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튀니지의 사이에드와 같이 기성 제도권 정치를 완전히 거부하고 기성 정치인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하는 ‘구세주’가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분석한다.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뒤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안정과 경제성장을 내세운 이집트의 압둘 파타흐 엘시시(Abdul Fattah el-Sisi)도 비슷한 ‘구세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또한 아랍만의 현상은 아니다. 아랍에서의 구세주의 등장은 미국에서 부는 트럼프 열풍과 유럽의 극우주의의 부상과 같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환멸 속에서 대중의 진정한 대변자를 자처하는 포퓰리스트가 등장하는 전 세계적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아랍의 봄이 남긴 변화를 지금 확신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 “프랑스 혁명을 보라! 혁명은 시간이 필요하다.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한 아랍 예술가의 선언(164쪽)은 민주주의 정착 여부만으로 아랍의 봄의 성과를 판단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엄한진은 혁명 이전의 정치 세력과 사회 운동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동 사람들이 저항에 눈을 떴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아랍의 봄이 이미 실패했다고 여겨지던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에도 중동 각지에서 저항이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2011년에는 시위의 물결이 미치지 않았던 알제리와 수

단에서는 2010년대 후반 대대적인 저항으로 잇따라 독재 정권이 무너졌으며, 이라크와 레바논에서는 여러 종파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기성 정치인에 맞서는 새로운 애국주의가 등장했다. 이란에서도 2022년 히잡 반대 시위와 같이 신정 체제 자체에 대한 반감은 성장하고 있다.

아랍의 봄이 아랍 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듯이, 멈추지 않는 저항이 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중동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아랍의 봄이 남긴 혼란은 IS라는 부산물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동시에 중동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단정도 적절하지 않다. 사회 구성, 경제 구조, 정치 제도와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중동이 나아갈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슬람 또는 추상적인 중동 문화와 같이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요인에만 매몰되고 그 요인에 절대적인 설명력을 부여하는 중동 예외주의적인 시각은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착하지 못한다. 엄한진의 『다르지 않은 타자: 사건으로 보는 중동의 정치와 사회』는 예외주의의 단순화된 설명을 넘어 언뜻 특수해 보이는 중동의 모습을 보편적 언어로 설명하려는 뜻깊은 시도다.

투고일: 2024년 7월 7일 | 게재확정일: 2024년 7월 31일

참고문헌

- 엄한진. 2011. “아랍세계 논의의 특징과 오리엔탈리즘 전통.” 『아시아리뷰』 1권 1호, 171-195.
- _____. 2015. “서구가 바라본 오리엔트, 오리엔트가 바라본 서구.” 『문화와사회』 19권, 169~205.
- 한새롬. 2021. “‘아랍의 봄’ 10년 후: 튀니지 민주화의 재조명.” 『한국중동학회논총』 42권 4호, 99-124.